프리즘

우리 출판의 일그러진 초상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다. 1992년 한 해 동안 많은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둔 사람에게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재야의 종소리는 공평한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다. 우리출판계도 이제 나이테 하나를 더 보태놓게 되었다.

그러나 이게 뭔가? 세밑에 드러난 무실적 출판사의 통계수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991년 말 현재 출판사 수는 6,607개. 이중 무실적 출판사가 61,7%나 차지하고 있다니…….

한국 출판계의 초라한 얼굴이다. 아니 비참한 자화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쉬쉬해 오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지만 정확한 통계수치로 확인 된 적은 없었다.

경제에서 '거품경제'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이래서는 안된다"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이제 출판계도 따따부따 쓰디쓴 충고를 들어야 할 때인 듯하다.

출판인들은 대개 이런 말로 자기 변론을 대신할 것이다. "책을 사 보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이 말도 일정부문 타당하다. 그렇다고 이 말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출판사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의당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책을 출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적 직무유기와 다름 아니다.

분명 출판시장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그렇다고 마냥 내일만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노력을 기울인 기획, 참신한 편집으로 출판된 책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풍토도 있지만 언제까지 풍토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때다. 앞길이 험하다면 험한대로 나아가야 할 일이다. 이제 다리쉼은 그만하자.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空手來 空手去라는 말처럼 처연한 '척'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명실공히 '시대를 이끌어 가는' '문화의 첨병'이라는 수식어를 되찾을 때이다. 한 해에 2백권 이상의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도 있다는 것을 귀감 삼아야 할 것이다.

내년은 '책의 해'다.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출판인으로 돌아와 맞이할 대망의 해이다.

——이성수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모티머 J. 애들러의 저서 「자유인을 위한 책읽기」(원제 How to Read a Book)는 名著를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교육의 회복을 부르짖는 책. 애들러는 이 책에서 "명저들은 빛바랜 영광이 아니며, 학자들이 탐구하는 먼지투성이의 유물도 아니다. 그것들은 없어진 문명에 대한 기록도 아니며, 오히려 명저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문명화시키는 가장 유력한 힘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크게 세 부분 '책읽기의 적극성' '책읽기의 규칙' '독자의 나머지 생애를 위하여'로 구성된 이 책은 부제대로 '명저 읽기의 길잡이'인 셈이다.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책을 읽는 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16장 '서양의 명저들'가운데 일부분을 번역본(최영호 옮김, 청하)에서 인용, 소개한다.

사실, 명저란 가장 폭넓게 읽힐 수 있는 책일 것이다. 그런 책들은 단지 한 두해 동안만 베스트셀러일 리 없다. 오히려 명저들은 꾸준히 팔리는 책일 것이다. 「007 제임스 본드」는 「돈키호테」나 세익스피어의 희곡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의 읽히지 않는 책이다. 최근 어느 저자가 말했다시피, 호머의 「일리아드」가 지난 3천여년 동안 최소한 2천5백만명에 달하는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추정은 온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독자들은 이 책이 수개국어로 번역되어 수년동안 읽혀져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수백만에 달하는 독자의 수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엄청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책이 모두 바로 이런 이유 한가지만으로 고전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점에서 볼 때, 일견 픽션이라 일컬어지는 「3주간」「쿼바디스」「벤허」와 같은 작품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명저라고 해서 반드시 그 책이 출판된 당시의 베스트셀러일 필요는 없다. 궁극적인 독자를 얻는 데는 숱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혹성운동에 관한 책, 지금은 고전에 속하게 되었지만, 을 저술했던 케플러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 위해 신이 6천년 동안을 기다려 왔듯이, 나는 내 책의 독자를 위해 한세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명저들은 현학적이지 않고 통속적이다. 명저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유별난 사람들이 저술한 것이 아니다. 각종 명저들은, 그 책이 철학책이든 과학책이든 혹은 역사책이든 시집이든간에, 학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명저들은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을 위해 집필된다. 내가 명저들을 통속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무 책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통속화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명저들은 처음 씌어질 때부터 일반대중을 위해 저술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명저는 초심자를 위해 저술되었다. 앞서 시사했듯이, 그 이유는 명저는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명저는 어떤 것을 독창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독자는 거의 초심자가 되는 셈이다.

상급학년의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초급학년의 교과서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명저는 전부 초급수준이다. 그것은 어떤 주제의 요소들을 다룬다. 명저들은, 관련된 문제의 어려움이나 기술성에 따라 등급지워진 일련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서로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명저를 읽을 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은 이전에 읽었던 것이나, 저자가 직접 읽은 다른 명저들이다. 만일 독자가 저자가 시작한 곳에서 시작했다면, 정작 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출발에 보다 나은 채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수학과 과학의 저서조차 특별한 지침 없이도 읽히워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과 뉴우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들어 이 점을 입증해 보겠다. 유클리드는 수학에 관한 어떤 선험적 연구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책은 기하학에 대한 입문서이자 산술학의 개설서였다. 이와 똑같은 사실이 뉴우턴에게도 적용되는데, 그 까닭은 뉴우턴이 물리학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수학을 빌어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관찰들을 해석하는 데, 그의 수학적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유클리드의 수학적 추론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뉴우턴은 유클리드의 저서를 완전히 이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뉴우턴의 수학적 스타일은 유클리드의 비율법과 비례법에 그가 얼마나 영향받았는 지를 보여준다.

내가 이러한 과학명저들을 전혀 노력도 들이지 않고서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상, 역사적인 계보를 따라 그 책들을 읽는다면, 여기에 쏟았던 수고는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유클리드가 뉴우턴과 갈리레오에게 시사했던 것과 꼭같이, 그들은 패러데이와 아인슈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은 수학저서와 과학저서간에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불분명한 경계는 철학책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명저들을 쓴 저자들은 독자에게 그들의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만 했던 책들을 지적해준다. 이를테면, 듀이는 독자에게 밀과 흄의 저서를 먼저 읽히고자 했으며, 화이트헤드는 데카르트와 플라톤의 저서를 읽히고자 했다.

출판저널

통권 제118호 / 1992년12월5일 발행

발행인 —— 鄭鎭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羲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자문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彦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鏞廈 安秉永
安輝濟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熹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彦鍾 鄭雲暎 鄭晋錫
鄭鎭弘 曺南鉉 曺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産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독자서평담당자」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